



혁신융합학부 신설해 창의인재 기르는 백석대학교

백석대는 '교육은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바꾸어가는 일'이라는 설립 취지 아래 40년 넘게 젊은이들이 꿈을 이뤘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백석대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고자 혁신융합학부를 올해 신설했다. 주 전공과 혁신융합학부의 전공을 함께 공부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혁신융합학부는 글로벌MICE융합전공, AR·VR융합전공, 소셜비즈니스융합전공, 컬처테크융합전공으로 구성돼 있다. 신입생을 맞이하는 일반 학부와 달리 2~3학년 재학생을 모집해 주 전공과 함께 복수 전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11월에는 제1회 혁신융합 어울림 학술제를 열어 약 1년간 혁신융합학부 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실적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혁신융합학부에서 AR·VR융합전공을 공부하는 3학년 서어령(22)씨는 "본래 전공인 ICT학부 멀티미디어학과 혁신융합학부를 복수 전공하면서 디자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요즘 독특한 캐릭터를 개발 중인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하나의 결과로 내놓는 과정이 무척 즐겁다"고 말했다.

백석대는 2019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혁신 선도대학은 산학 협력 고도화형 및 사회 맞춤형학과 중점형 대학이 신청할 수 있다. 백석대는 사회 맞춤형학과 중점형 대학 중에서 선정됐다. 이 제도는 채용 연계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백석대는 5G 및 ICT 기반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농축산업 환경 제어라는 목표 아래 '5G 기반 디지털 팜' 협약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백석대는 인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인성'을 길러내기 위해 오래전부터 지역 연계 사회봉사활동, 가을철 김장 나눔 대축제, 연탄배달봉사, 방학 중 아동·청소년 대상 백석کم캠프 등으로 인성 교육에 나서고 있다. 많은 기업이 취업준비생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 올바른 인성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백석대는 인성 교육의 노하우와 다양한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



심세하게
단단하게

백석대학교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20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2019.12.26(목) ~ 2019.12.31(화)

디자인영상학부 2015학번 권소리 학생 공모전 선정작